1988년12월, 5공 청문회에서 정주영 증인이 “나는 시류에 따라 산다” 라는 답변을 하자 이에 대해 반박 질문

“시류에 순응하는 것이 힘이 있을 때는 권력에 붙고 힘이 없을 때에는 권력과 멀리하여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가치관의 오도를 가져오게 하고 정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양심적인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킨다고 보지 않습니까”